

관세영향 완전 해소... 셀트리온, 미국 생산 확대 '승부수'

바이오시밀러, 관세 적용 제외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전략 추진
브랜치버그공장 7.5만리터 증설

셀트리온이 미국 의약품 관세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중장기 성장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미국의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을 통해 회사 사업에 미치는 관세 영향이 사실상 해소됐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의약품 공급망의 자국내 회귀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정부와 약가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의약품 및 해당 원료 수입에 대해 100% 관세가 부과되며 ▲국가별 차등 관세 적용에 있어서 한국은 기존 무역협정을 고려해 의약품에 대한 1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 약가(MFN)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은 관세 면제도



셀트리온 '집펜트라'.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서 셀트리온의 미국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시밀러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영업·마케팅 전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 셀

트리온은 향후 바이오시밀러 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브랜치버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현지 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에서 신약으로 판매 중인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 치료제 '집펜트라'도 원료의약품(DS)이 미국 뉴저지주 소

재 브랜치버그(Branchburg)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어서 관세 영향은 없을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해당 시설에 이미 집펜트라 생산 관련 기술 이전(tech transfer)을 완료한 상태로, 향후에는 집펜트라 뿐 아니라 미국에서 판매될 모든 제품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미국 관세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 완료해, 향후 관세율 조정 등 미국 관세 정책이 다시 변경되더라도 관련 영향권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완제의약품(DP)뿐 아니라 원료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요구하고 있어, 글로벌 제약사의 현지 생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은 자사의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이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에 대한 7만5000리터 추가 증설 계획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총 생산 캐파는 원료의약품 생산 기준 현재 6만

6000리터에서 14만1000리터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 생산뿐 아니라 글로벌 위탁생산(CMO) 수주 역량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한 직판 경쟁력 강화도 예상하고 있다. 집펜트라라는 올해 들어 처방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면서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현지 생산 시설을 통한 무관세로 가격 경쟁력까지 더해질 경우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물류·운송비 절감까지 감안하면 타사 대비 가격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미국 의약품 관세 정책을 통해 회사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군에 대한 관세 영향이 사실상 해소된 가운데, 현지 생산을 통한 직판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사업 기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집펜트라를 포함한 주요 제품의 처방 확대 및 CMO 사업 확대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R&D 강화 나선 SK바사, 연구 조직 재정비

마상호 부사장, 연구지원실장 영입
중장기 파이프라인 실행력 강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코자 핵심 인재 영입하고 연구지원 조직을 정비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연구본부 내 연구지원실장으로 감염병 분야의 연구사업관리 전문가인 마상호 부사장(사진)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R&D 프로젝트 관리(PM) 기능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고, 연구기획부터 규제 대응, 비임상 및 임상검체분석(GCLP) 운영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회사는 중장기 파이프라인의 개발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고, 주요 프로젝트의 단계별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상호 연구지원실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GC녹십자, 중외제약 등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업계에서 의약품 및 백신 제품의 비임상 및 임상 개발 과제 등을 두루 섭렵해온 전문가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약학 박사학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화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마 실장은 그간 쌓아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R&D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시에 연구지원실 산하에 연구기획팀, 바이오규제관리팀, 비임상지원(N

CS)팀, GCLP 팀 등을 편제하며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강화된 연구지원 기능을 바탕으로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범용 코로나 백신, RSV 예방항체, 에볼라 백신, 차세대 독감 백신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글로벌 협력 기반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송도 글로벌 R&PD 센터로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하며, 연구개발, 공정개발, 품질 분석, 사업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진기지를 구축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후 에볼라, RSV, 차세대 독감, 범용 코로나 백신 관련 프로젝트를 국제 기구 및 기관들과 본격 착수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팜퍼스 '2026 여름 기저귀' 2종



/한국P&G

팜퍼스, 무더위 겨냥 썸머 기저귀 선포

에어 메쉬 소재로 통기성 높여

한국P&G는 기저귀 브랜드 팜퍼스에서 2026 여름 기저귀 '엔젤 에어차차 썸머팬티'와 '터치 오브 네이처 썸머팬티'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기저귀 내부에 열기와 습기가 쉽게 축적되는 만큼, 아기 피부를 보다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팜퍼스는 계절적 특성을 반

영해, 두 제품 걸커버와 허리 밴드에 100% 에어 메쉬 소재를 적용하는 등 통기성과 착용감을 강화했다.

'엔젤 에어차차 썸머팬티'는 기저귀 전체 걸커버와 탭시트에 3만 개의 공기 구멍을 설계해 공기 순환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저귀 내부 습기를 빠르게 배출해 장시간 착용 시에도 보송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또 팜퍼스만의 냉각 기술이 더해져 쾌적함을 높인다.

/이청하 기자

"출혈 걱정 줄었다"... JW중외제약, 혈우병 치료제 효과 입증

'헬리브라' 연구 결과 발표

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헬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를 투여한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에도 낮은 출혈 위험을 유지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 학술지 'TH Open'에 게재됐다고 6일 밝혔다.

'헬리브라'는 이종특이항체 치료제로 A형 혈우병 환자의 몸속에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는 기전을 갖췄다.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제8인자 대체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보유 환자뿐 아니라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일본 나라의과대학 소아과 게이지노

가미 교수 연구팀은 약 97주간 일본 내 50개 의료기관에서 소아 및 청소년 A형 혈우병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헬리브라 예방요법을 적용하며 신체활동, 출혈, 안전성, 삶의 질 변화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전자 환자보고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활동 추적기, 설문지 등도 활용했다.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연령군에 따라 헬리브라 투약 전 최근 12주 또는 24주 내 1.5~2.0회의 출혈 이력이 있었다. 헬리브라 예방요법 전환 후에는 연간 출혈 빈도(ABR) 중간값이 0.53회로 나타났다.

연구 기간 중 고위험 활동 44건, 중위험 활동 70건, 저위험 활동 42건 등 총

172건의 신체활동이 기록됐다. 특히 축구, 유도 등 중·고위험 활동을 포함해 25가지 이상의 신체활동이 확인됐다. 신체활동과 관련된 외상성 출혈은 1건 보고됐으나 활동 강도와 출혈 간 유의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삶의 질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됐다. 삶의 질 설문조사 점수는 2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보호자 대상 설문에서는 14명(43.8%)이 자녀의 활동량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 18명(56.3%)은 자녀의 출혈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영유아 환자군에서 특히 우려되는 두개내 출혈(ICH)과 혈전 색전증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청하 기자

간편하게 쓱쓱... 비레디 '아웃런 선스틱'

아모레퍼시픽, 남성용 선키어 출시

아모레퍼시픽은 남성 화장품 브랜드 비레디에서 선키어부터 피부 컨디션 관리까지 한 번에 돕는 '아웃런 선스틱'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바른 듯 안 바른 듯 가볍게 밀착되는 에어터치 제형으로 설계됐다. SPF50+PA++++의 자외선 차단 지수와 함께 8시간 지속내수성을 갖춘 것도 특징이다. 물과 땀에 강해 러닝, 골프, 물놀이 등 활동량이 많은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다공성 파우더를 처방해 운동 중에도 묻어남 부담을 줄였다.



비레디 '아웃런 선스틱' /아모레퍼시픽

또 고순도 병풀 추출물 핵심 성분인 '테카'를 함유해 건조함과 거칠어짐 등으로 민감해진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